

영광승마장서 말타며 힐링하고 건강 챙기세요

영광군, 전남 최초 지자체 직영 2만4744㎡ '공공승마장' 운영 승마강습·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학생·유소년 강습비용 지원

"영광승마장서 힐링·건강 챙기세요."
영광군이 전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직영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홍농읍 진덕리에 위치한 영광승마장은 직영 공

공승마장으로 총 부지면적 2만4744㎡, 시설면적 1만4338㎡의 규모에 마장과 마방, 방목장, 교육관 등의 시설과 전문마필 교육을 이수한 승마교관 5명의 강습인력을 갖추고 있다.
군은 영광승마장에서 다양한 승마체험 프로그



영광 홍농읍 진덕리에 있는 영광승마장에서 한 이용객이 승마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램을 운영하고 있다. 1일 체험권과 회원권을 통한 승마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승마'와 '힐링승마', '유소년승마' 세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학생승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힐링승마'는 공직직급 및 취약계층,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접수 결과 선정된 참여자의 강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소년승마'는 일정자격을 갖춘 초·중등 유소년을 대상으로 승마선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유소년승마 단원이 지난해 전남소년체전에서 장애물(90cm) 1위, 마장마술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승마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스포츠이다. 코어근육에 자극을 주므로 체형교정과 허리디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운동이라 관절염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칼로리 소모가 수영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승마 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061-350-5779) 또는 영광승마장 (061-356-54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승마장에 방문하게 되면 승마라는 낯선 스포츠를 누구든지 쉽고 친근하게 접해볼 수 있으므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angju@kwangju.co.kr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참여 4명 독립유공자 포상

보훈부 건국훈장 애족장 수상

신안군은 광복 79주년 맞아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은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의를 기점으로 1924년 하의도 소작쟁의, 1925년 지도 소작쟁의와 도초도 소작쟁의, 1926년 자은도 소작쟁의, 1927년 매화도 소작쟁의를 말한다. 이번엔 신규 추서된 독립유공자는 암태도 1명, 도초도 1명, 임자도(지도 소작쟁의 참여) 2명 등 모두 4명이며 이들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동

령 표창을 받았다.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고(故) 손학진 선생은 암태도소작인회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24년과 1925년 두 차례 일제에 수감돼 옥고를 치렀다.

신안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게 될 뻔한 섬사람들의 의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후대에 전하고자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를 2020년 설립했다.

기념사업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지원 업무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인의 숭고한 행적을 밝히고, 후손의 의사를 존중해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설립 이후 현재까지 41명이 새롭게 추서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이 땅의 모든 독립운동가를 흠모하고 존경하며, 서남해 도서지역에서 일어난 항일농민운동의 외침이 잊혀지지 않고 결실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의도3도농지탈환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신안군 항일농민운동기념관 건립 등 독립운동 재조명과 선양사업을 기념사업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시문학 콘서트

11월까지 매일 1회...시인 3인 초청

해남군은 땅끝순례문학관에서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시인 3인을 초청해 시문학콘서트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작가와 대화의 통를 통한 작품 해설과 시낭송, 아름다운 가곡을 곁들이는 형식으로, 9월부터 11월 까지 매일 1회 개최한다.

오는 9월7일에는 '구관조 짓기', '희지의 세계',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의 저자 황인찬 시

인, 10월5일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당근밭 걷기'의 저자 안희연 시인, 11월9일 '블로리홀', '아무튼, 스웨터'의 저자 김현 시인과 만난다.

또 마인즈국립극장 오페라 '리날로'의 타이틀 롤로 화려하게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를 포함해 바리톤 황성철, 소프라노 박성경 등 전문 성악가들이 풍성한 무대를 꾸릴 예정이다.

콘서트에서는 광주·전남권에서 활동하는 현역 시인들이 초대 작가들의 시를 직접 낭송하는 시간도 갖는다.

땅끝순례문학관의 시문학콘서트는 '시문학의 고장 인문 해남'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함께 문학을 즐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시인들과 성악가곡의 색다른 만남을 통해 가을 감성을 채우는 자리로 마련했다. 선착순 전화접수 10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땅끝순례문학관 (061-530-5127)으로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모시기 어려운 작가분들을 모시고 풍성한 가을 문학 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쌀·고구마서 배까지...영암 농특산품 해외 시장서 인기

미·중동·동남아 잇단 수출길

쌀과 고구마에서 배까지 영암 농특산품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영암군은 서영암농협 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미국 5차 수출 선적 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5차분은 6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학이머문 쌀' 20t이다.

서영암농협의 학이머문 쌀은 지난 4차 선적까지 53t이 미국에 수출됐다.

친환경 쌀 이외에도 최근 영암군 농특산품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영암의 고구마가 중동 UAE로 처음 수출되며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농업회사법인 (주)담아는 당시 5t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120t의 프리미엄급 고구마를 수출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신북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영암 배 대량 수출 선적식도 열렸다.

영암 배는 201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대만·러시아·태국 등으로 시장을 넓히며 올해까지 4187t이 팔려나갔다.

올해 영암 배 수출 목표는 1500t이다.

영암군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농특



지난 19일 서영암농협 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영암쌀 미국 5차 수출 선적 행사가 열렸다. <영암군 제공>

산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 수출특화 품목 직불금 사업' 시행에 나섰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이 사업은 크게 큰 해상운임 등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자에게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천혜의 자연에서 솟아 좋은 영암 농부들이 정성으로 길러낸 농산물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쌀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도 높이는 농정대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은 지난 19일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5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서약

갑질 근절 등 20개 과제 추진

완도군은 5급 이상 공직자들이 부정청탁 금지와 갑질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완도군 5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공직자들은 이번 서약을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와 상급 등 독립운동 재조명과 선양사업을 기념사업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완도군 각 부서와 읍·면 등도 부정 청탁 및 금

품 등 수수 금지, 이해 충돌 방지, 6급 이상 갑질 근절 서약 등을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 요인 차단, 반부패·청렴 추진 기반 조성, 소통·공감 청렴 시책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고 부패비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고위 공직자 청렴 리더십 프로그램 등 20개 세부 과제도 펼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간부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완도군정이 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난 20일 해남 송지 파크골프장이 준공돼 개장 기념식이 열렸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18홀 규모 '송지 파크골프장' 준공

3개소 준공 이어 2개소 신규조성

해남군이 송지 파크골프장을 준공하는 등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도비 2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이 투입된 송지파크골프장은 송지면체육회 부지 1만5213㎡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주차장과 쉼터, 화장실, 사무실,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파크골프는 몸이 부담이 적으면서도 적정 활동량을 보장할 수 있는 운동으로, 기존 골프의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흥미있게 운동할 수 있어 노인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해남군은 삼산파크골프장과 산이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송지 파크골프장이 조

성되면서 송지면과 복일, 북평 등 땅끝권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삼산 파크협회에는 2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산이 파크클럽도 150여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해남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중부권인 화산면과 동부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각각 실시설계와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파크골프 동호인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여건이 좋은 생활체육시설이 마련된 만큼 마음껏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2000원 지원

목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앱 이용자가 배달 서비스 이용시 건당 2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했다.

배달 이용자는 맥게비, 땡겨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표시되는 착한가격업소 목록을 확인하고 배달료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결제시 쿠폰을 적용하면 배달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중 배달플랫폼에 가입한 외식업소는 7개소로, 지난 7월에는 총652건이 배달되어 134만4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했다.

배달료를 지원받기 원하는 착한가격업소는 맥게비, 땡겨요,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에 가입

만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운영물품 구입비 등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수저집, 앞지마 등 각 업소별로 필요물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민들도 고물가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